김안나의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

트랜스내셔널 서사 미학을 중심으로

김 수 민 (한양대)

Ⅰ. 서론

최근 새로운 번역서가 출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안나 Anna Kim의 작품들은 작가의 생애와 관련지어 보면 디아스포라 문학 Diasporic Literature에 해당한다.[1] 작가는 어린 시절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오스트리아에서 살았으며 지금까지 독일어로 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김안나의 문학에 대해서는 이민문학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보다는 독창적인 시학을 추구한다는 평가가 앞선다. 이 같은 평가는 역사와 현실 속의 사건들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서술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작가의 글쓰기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 그의 작품 속에는 식민지, 범죄, 입양, 납치, 전쟁과 같은 폭력의 보편성이 나타나 있

* 이 연구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2024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더불어 한국독어독문학회 2025년 겨울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김안나: 『어느 아이 이야기』, 최윤영 역, 을유문화사, 2025 참고; 디아스포라 Diaspora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류의 분산 또는 이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예술 그리고 문학 작업과 관련해서 쓰이는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Vgl. Naimou Angela (ed.): Introduction. In: Diaspora and Literary Studies. Cambridge Critical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S. 1-30.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diaspora-and-literary-studies/introduction/274888C534C5F66B3833D5661E286E08] (접속일: 2025.10.15.).

2) Vgl. “쓰기 예술은 깊은 지하 속 차고다. 나바 에브라히미와 김안나가 사실과 허구, 심리치료 그리고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다 Die Kunst des Schreibens ist eine Tiefgarage: Nava Ebrahimi und Anna Kim sprechen über Fakten und Fiktionen, Therapie und Erkenntnis”, Bücheratlas, 2024.05.23. [https://buecheratlas.com/2024/05/23/die-kunst-des-schreibens-ist-eine-tiefgarage-nava-ebrahimi-und-anna-kim-sprechen-uber-fakten-und-fiktionen-therapie-und-erkenntnis/] (접속일 2025.10.15.).

www.kci.go.kr

는가 하면 자연, 탐험, 로맨스, 기억, 상실, 타자, 언어, 그림과 같은 다양한 소재들이 경계없이 서로 뒤섞여 있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민 이야기만 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디아스포라 작가가 아닌 “그냥 독일어권 작가”(김안나·최윤영 2020, 259)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이민이나 전쟁, 테러와 같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문학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정체성, 타자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동시대 디아스포라 예술 안에서 차지하는 김안나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종과 전쟁, 이민, 폭력 등 세계사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김의 문학은 트랜스내셔널 서사로 일컬어진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자국문학을 넘어 세계문학의 성격으로 분류되는 오스트리아 작가들을 거론하는 지면에서 김안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Vgl. Guenther 2025, 25). 여기에서 거론되는 세계문학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은 이민과 이민자들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낯선 문화’에 적응하여 동화되어 가는 이방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담은 기존의 서사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이방인이 체험하는 낯선 문화와 정치, 사회 현실이 강조되어 있다기보다, 그 대신 이민을 계기로 생겨난 변화와 이동, 다양성, 새로움에 관한 실험적인 내러티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Vgl. ebd., 26). 이로써 오늘날 디아스포라 개념이 이민문학의 단순한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 양식과 표현을 위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에 아모데오 Immacolata Amodeo는 이민문학이 자국문학과의 차이에서 변방 Rand이나 낯섦 Fremde과 같은 단어를 통해 이민자의 현실을 복원하는 리얼리즘적인 서사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다양성과 혼종성 Hybridität이 미학적인 장치로서 독창적인 예술 형식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트랜스내셔널 서사담론 안에서 보다 더 확장된다. 이에 이민과 이산을 계기로 생겨난 이동성과 확장을 지시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예술작품들과 인문학 담론 또는 문화 담론 안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20세기 초반의 ‘언어적 전회’에 상응하는 ‘트랜스내셔널 전회 transnational turn’

www.kci.go.kr

라고 일컫기도 한다(Vgl. Jay 2010, 9-20). 그에 상관되어 있는 문학작품들 역시 역사적 사건이나 그에 얽힌 담론들에 관한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현재의 대화 과정으로서 역동적인 서사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Vgl. Guenther 2025, 26f.).

특유의 포스트모던한 서술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탐색하는 김안나의 문학은 이민문학의 이 같은 변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본래 문학이 형식을 탐구하는 것 혹은 대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igentlich sehe ich ja Literatur als eine Form zu forschen oder Dinge zu erfahren" (Hueck 2011; Koiran 2023, 154)라는 김의 언급 속에는 문학을 자유로운 탐색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 있다. 그의 관심을 작품 속에서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린란드를 탐험하고 쓴 에세이 『사적인 것의 침입 Invasionen des Privaten』(2011)에는 사회 현실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상흔이 아름다우면서도 냉혹한 그린란드의 자연과 대비를 통해서 그려져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전쟁을 허구적으로 재현한 『얼어붙은 시간 Die gefrorene Zeit』(2008)에서는 전쟁 실종자에 대한 애도와 슬픔, 그에 이어져 있는 생존과 죽음에의 성찰이 "기억 형식"(Koiran 2023, 151)이라 일컫는 독특한 서술을 통해서 등장한다. 이 가운데 김의 데뷔작으로 일컬어지는 『그림의 흔적 Die Bilderspur』(2004)은 소설 형식의 실험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이미지와 언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무는 "초현실적인"(김안나·최윤영 2020, 261) 소설에 해당한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부녀 사이에 놓인 갈등과 화해를 그린 이야기 속에는 가족을 비롯한 타자와의 관계가 언어와 그림 사이에 놓인 이원성과 보이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중 화가인 아버지가 딸에게 그림에 담긴 이야기, 즉 그림의 언어를 전수하고 어린 딸이 외국어에 익숙치 않은 아버지를 위해 통역자 역할을 수행하는 에피소드에는 작가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김은 한 에세이에서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은 부모를 위해서 어린 시절 통역일을 도맡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Vgl. Kim 2015, 81-85).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소설은 언어와 이미지의 반복과 중첩이 만들어 내는 환상적이고 독특한 장면들로

www.kci.go.kr

인해 그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Vgl. Koiran, 158).

본 논문은 김안나의 포스트모던한 작업이 작가가 보여주는 특유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정 속에서 디아스포라와 상실, 죽음과 같은 주제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독창적인 서술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들에서 김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디아스포라로서 작가의 체험과 생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민자 서사의 새로운 서사 전략으로서 작품의 예술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얼어붙은 시간』에 나타나 있는 서술적인 특성을 고찰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작가의 문학비평과 에세이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김안나의 가족은 작가가 두 살되던 해인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엄혹한 현실을 피해서 한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민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1984년 이래로 김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 가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고백한다. 그는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하지만 한국어는 아주 어릴 때 집안에서 배운 것이 전부다. 대학에서 철학과 연극을 전공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에서 연극 실습을 배웠으며 1999년부터는 매거진에 시와 산문,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림의 흔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뒤로『얼어붙은 시간』,『사적인 것의 침입』,『어느 밤의 해부학 Anatomie einer Nacht』(2012),『위대한 귀향 Die große Heimkehr』(2017),『한 아이 이야기 Geschichte eines Kindes』(2022)와 같은 뛰어난 작품들을 발표했다.『얼어붙은 시간』은 2012년 유럽연합 문학상 The Literary Prize of the European Union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www.kci.go.kr

Ⅱ. 김안나와 트랜스내셔널 서사의 현재성

Ⅱ.1. 스테레오타입에서 미학적 서사로

1990년대 독일 학계에서는 이민자 문학 혹은 다문화주의 서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다문화성 Multikulturalität, 상호문화성 Interkulturalität, 혼성성 Hybridität과 같은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한 가운데 이 용어들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다양한 논의들에서 유행처럼 쓰이고 있었다. 한편 독일로 이주하거나 망명한 작가들이 쓴 작품들은 문화적 소수자들에 의한 문학이라는 편향된 시선을 얻는데 그치고 있었다.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으며, 에셀본 Karl Esselborn은 외국인 노동자 문학 Gastarbeiter-literatur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문학이론의 하위 부류로서 이들을 장르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한다(Vgl. Esselborn 1997, 47-75). 이렇듯 이민자 문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기, 호미 바바 Homi K. Bhabha의 문화이론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난 다문화주의적인 시선을 통해 조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바바 이후에 문화적 고유성과 타자성의 관계는 서로 마주 놓인 대립적인 관계를 넘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아의 타자성”(바바 2012, 111)이라는 바바의 표현 이후에 타자를 구분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통해서 주체의 왜곡된 인식과 허상화된 정체성의 투영이라 볼 수 있는 나르시시즘적인 본성이 폭로된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자리잡는다.

문화이론의 급진성과 더불어 자국문학(독일문학)과 이민자 문학 사이의 차별적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확장된다. 당시 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 아모데오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가려 드러나지 않은 자아의 실체를 지적한 호미 바바와 유사하게 자국문학 위주의 문학담론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한다. 그에 따르면 이민자 서사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내재한 ‘위험’은 위계화 Hierarchisierung와 비

www.kci.go.kr

환영성 Entfiktionlisierung, 통속화 Trivialisierung로 나뉠 수가 있다. 이민자 문학은 자국문학과는 다른 저급한 형태로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서사 형태인 환영적 허구성과는 거리를 두고 단지 각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고백(폭로)문학과 같은 것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미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인 주제까지도 그 가치가 폄하되곤 했다(Vgl. Amodeo 1996, 33-62). 무엇보다도 이민자 문학을 이국성을 좇아서 생겨난 유행으로 보고 이러한 작품들이 순수예술과는 거리가 먼 통속문학의 '전형화 Stereotypisierung'된 양식에 갇혀 있다고 보는 선입견이 우세했다(Vgl. Cornejo 2012, 95).

이와는 다른 관점 속에서 아모데오는 주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낯선 예술'이 권력 중심주의와 편향된 위계질서에 내재한 원칙을 거스름으로써 작품 안에 독특한 미적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낯섦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적인 문학 텍스트 안에는 들뢰즈/가타리의 이론에 비추어 리좀적이라 일컬을 수 있는 예술 형상이 담겨 있다(Vgl. Amodeo 1996, 108). 이종(異種)적인 대상들의 상호 연결과 혼용을 예술 작업의 원칙으로 삼는 텍스트는 기존의 권력 체계 내에 존재하는 기호의 고정적인 의미 관계를 변형시키고 파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호 체계와 다중적인 연결성을 통해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낸다(Vgl. Deleuze/Guattari 1977, 35; Amodeo 1996, 108f.).

아모데오의 주장은 특히 문화적인 다양성에 의한 상호텍스트적인 교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서사를 조직하는 기호들의 체계, 형상과 의미, 언어 사이의 구조적인 변화와 변동을 주목하는데, 이는 특히 김안나의 트랜스내셔널적인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 가령 바흐친을 차용해 담화적 다양성 Redevielfalt을 통한 이민자 서사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과 관련해서(Vgl. Amodeo 1996, 109f.) 김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의 상호 교차와 중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김의 코소보 전쟁 이야기 속에는 전쟁 실종자에 관한 서사와 함께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의 갈등, 알바니아인들의 관습과 문화, 이주 노동자를 통해 나타난 현대의 가족상, 연인과의 이별, 생존과 죽음 사이의 철학적인 명상, 기억과 실재의 상관관계 등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www.kci.go.kr

서사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구성은 트랜스내셔널 서사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영토, 지역과 같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해서 언어의 다중성 혹은 언어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Vgl. Ette 2016, 13f.). '이민'이라는 20세기의 현실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던 용어가 문학과 예술을 통해 점차 이동과 분산, 유동성에 관련한 문화적인 기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배경에 놓인 역사와 정치, 사회문화적인 담론 지식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삭제되어야 할 정보는 아니다.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탐색과 상호 교류가 새로운 텍스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트랜스내셔널 내러티브 분야의 중요한 문학이론가로 꼽히는 오트마르 에테 Ottmar Ette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의 보고를 근간으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해 가는 상호 문화적인 작업에서는 탐색과 성찰의 과정이 서사 양식과 이어져 있으며 이를 "무브먼트 시학 poetic of movement"(Ebd., 14)으로 일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내재적인 특징은 다와다 요코 Yoko Tawada의 글쓰기처럼 문학과 이중언어의 만남이 새로운 문학 양식의 대안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미지, 기호, 영상, 소리 등 텍스트 밖의 요소들이 언어와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시학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시학적인 면이 주목되는 사례로서 근래 번역을 통해 새롭게 출간된 한국계 미국 작가 차학경(테레사 학경 차 Theresa Hak Kyung Cha 1951-1982)의 산문시들이 있다. 그의 해체주의적인 산문시들이 담겨 있는『딕테 DICTEE』(1982)는 언어와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예술 형식들이 포스트모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전위주의적인 실험의 배경에는 작가의 고통스러운 개인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작품의 지배적인 정서는 다른 이민문학과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염원을 향해 있다. 시집을 열자마자 '어머니 보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글귀의 사진 이미지가 등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미지들과 사진, 한국어, 불어, 라틴어, 한자 등으로 구성된 시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시들은 해석되기보다는 시각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것들이다(Vgl. Cha 1982). 그의 산문시들은 작가가 당시 영향을 받았던 미국 반전운동 세대의 전위주의와 고향상실의 트라우마가 결합되어 독특한 문학적인 형식을 연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www.kci.go.kr

김안나를 비롯한 차학경의 사례는 디아스포라 작가들에게 지정학적인 영토가 아닌 예술적 영토(영역) 개념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문학과 언어의 저변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다와다의 문학에서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다와다의 상호문화적인 이야기들은 "의식 내면의 탈영토화 immanente Deterritorialiseirung"(Krauß 2002, 78)라는 표현으로 수식되고 있어 작가의 문학 세계가 이미 현실의 경계를 초월한 비가시적인 영역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다와다의 경우 작가의 문학적인 시도가 기존의 문학 언어의 문법에 저항하는 독창적인 언어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문학과 언어의 상관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4)]

김안나 역시 현실의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의식과 기억의 문제를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긴밀하게 엮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와다의 경우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 또는 정체성에 관한 성찰이 중심에 놓여 있다. 그의 예술작업을 관통하는 라이트모티브라 할 수 있는 "수색 Fahnden"(Kim 2024, 9)은 글쓰기를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추구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문학관을 반영한다.[5)] 작품 속의 서사적 주체들도 주로 어딘가를 찾아가 탐험하거나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지속적인 탐색을 시도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김안나의 이러한 '탐색의 시학'이 풍부한 상상력과 세밀한 서술을 통해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한 차학경은 1960년대와 70년대 샌프란시코의 젊은층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롭고 저항적인 예술운동을 경험하며 그로부터 영향을 얻는다.

4) 다와다의 언어관과 관련된 엑소포니 개념 연구로 최윤영(2020)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5) 2023년 잘츠부르크 대학에서 열린 슈테판 츠바이크 시학 강연 Stefan-Zweig-Poetik-Vorlesung 강연 원고를 재구성해 출간한 비평 에세이『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Zwischen Fakt und Fiktion』(2024)에는 다큐멘터리적인 조사와 기록, 이야기들의 수집을 통해서 글을 엮는 작가의 문학 스타일이 드러나 있다. '수색 Fahnden'이라는 소제목 아래 등장하는 에세이 속에서 작가의 예술적 관점을 읽을 수 있다.

www.kci.go.kr

Ⅱ.2. 김안나의 '탐색의 시학': 트라우마와 상상력

김안나의 문학에 대해서는 실재와 기억, 과거와 현재, 이미지와 언어 등 다양한 문학적인 소재들이 서로 자유분방하게 얽혀 포스트모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두드러져 있다(Vgl. Poljak 2012; Arteel 2012; Oswald 2013; Catone 2016). 쿠아랑 Linda Koiran은 그의 작품에서 전쟁과 인종, 정체성, 디아스포라와 같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놓인 주제들이 특유의 미학적인 형식을 의도한 서술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Vgl. Koiran 2023, 154).

김안나에게 타자 혹은 낯섦은 그의 언급에서처럼 문학과 현실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하는 대상이지만, 이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은 넓은 범주에서 보자면 재현 불가능한 서사를 향하고 있다. 폴야크 Martina Poljak는『얼어붙은 시간』이 '타자의 시학 Poetik der Fremde'을 중심으로 이러한 재현 불가능한 서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Vgl. Poljak 2012, 167). 그런데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타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쟁에 의한 포스트트라우마적 posttraumatisch 체험에 얽힌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내전(1990-2001)의 상흔에 대해서 다룬다. 1990년대 바로 인접한 나라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발발한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오스트리아인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일깨운 사건이었다. 이 전쟁을 소재로 쓰인 페터 한트케의 작품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 문학씬에서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전쟁을 다룬 문학작품에 담겨 있는 윤리적인 과제는 예술의 재현 가능성과의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6] 전쟁이라는 세계 역사의 극렬한 파괴 현장은 어느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무화시키기 마련인데, 양쪽 모두에 대한 재현을 시도하는 전쟁인종사 Kriegsethnographie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은 문학

6)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페터 한트케의『드라골류브 밀라노비치 이야기 Die Geschichte des Dragoljub Milanovic』(2011)는 출간과 함께 서유럽 사회에서 문학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비평가들은 나토(Nato) 전투기에 의해 폭파된 세르비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RTS의 국장 밀라노비치라는 인물을 소설 속에서 휴머니즘적으로 묘사한 데에 대해서 작가가 전쟁 희생자들(특히 알바니아계인들)한테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서 가벼운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서 전쟁을 다루었다고 비판했다.

www.kci.go.kr

적인 불가능성 혹은 서사의 난제에 봉착하기 마련인 것이다(Vgl. Müller-Funk u. Bobinac 2008, 1-50).

이와 관련해 구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김안나의 인터뷰 속에는 포스트 메모리 세대 Post-memory-generation(Vgl. Hirsch 2012)의 간접 체험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김의 재현 (불)가능한 문학이 탄생하는 과정은 전후 세대가 역사적 현장을 담은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최윤영** 이 작품(『얼어붙은 시간』)이 가장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알바니아의 인종 청소에 대한 역사를 다룬 소설이지요.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었나요?
>
> **김안나** 제가 빈에 살 때 알바니아-코소보 내전이 일어났어요. 1998년이니까 제가 열다섯 살 때였어요. 그건 빈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서 실제로는 우리 집이 전쟁터같이 느껴졌어요. 그 전쟁 때문에 구 유고에서 피난민도 빈에 많이 왔고요.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주제들이 아주 가까이 느껴졌었어요. 또 국제적십자사의 기록들도 찾아서 많이 읽었고요(김안나·최윤영 2020, 263).

위에 등장하는 김안나의 증언은 세대 교체라는 측면이 빠진 포스트 메모리적인 역사 체험의 사례와 같이 비춰진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사실상 시간적인 차이와 세대교체에서 오는 인식과 체험이 문제시될 뿐만이 아니라 미처 드러나 있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지역사회 또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권으로까지 그 전범위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집이 전쟁터같이 느껴졌다”고 소회하는 작가의 말 속에는 2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당시 구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이 마치 포스트 메모리 세대가 간접 체험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사건이었음을 암시하는 면이 있다.

과거의 사건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작가는 거대담론을 우회하여 평범한 일상, 세밀하고 감춰져 있는 기억이나 감정, 관습을 소재로 하여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까닭에 독자의 눈에는 다소 불분명하고 평범한 이야기들로 비춰질 수가

www.kci.go.kr

있다. 그의 작품들이 흡사 아버지와 딸(『Die Bilderspur』), 남편과 아내(『Die gefrorene Zeit』), 아이와 엄마(『Geschichte eines Kindes』)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이고 내밀한 사건들을 주제로 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부녀 사이의 갈등을 통한 이방인 문제, 정치적 희생을 면제받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채감, 입양과 관련된 인종적 갈등 문제와 같은 깊고 무거운 주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자아와 타자, 나와 가족, 이방인과 현지인, 식민지와 본국 등 차별과 배제, 오랜 관습에 내포된 이분법적인 관계를 끄집어 내는 작가는 그의 포스트모던한 서술 속에서 이 같은 관계들이 자유분방하게 흩어져 새롭게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안나의 문학적 상상력은 철학과 문학 그 밖의 사회학 텍스트들과의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학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타자와 폭력의 관계를 성찰하고 있는 한 에세이 속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 겪은 일화들이 "눈앞의 적 Der sichtbare Feind"(Kim 2015, 81)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등장한다.[7] 친밀한 관계를 빌미로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곤 하는 가족관계의 드라마 안에는 사실상 타자와 나 사이의 완전한 경계 짓기가 불가능한 사회 현실의 모순이 오버랩되어 있다. 이러한 타자와의 복합적인 관계는 결국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되비추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한 이방인 어린이에 관한 사회학 문서가 중요한 근거로 등장한다. 관찰에 따르면 아이는 초등학생이 될 무렵 타지에 적응하고자 했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혼란스러운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아이들은 적응과 동화의 시기를 지나 외국인으로서 모순된 이중-문화적인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또한 숙달된 적응기술자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 […], so daß sie nach der Akkulturation und Assimilation eine ambivalente bikulturelle Identität als Fremder besitzen und als Anpassungskünstler bezeichnet werden können"(Kim 2015, 81). 김안나의 이야기에서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모호

7) 어린 시절 김은 독일어에 익숙치 않은 부모에게 독일어 문법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당시 김은 낯선 한국어가 "그림자 언어 Schattensprache"(85)처럼 느껴졌으며 어른들을 가르쳤던 경험에 관해서는 "아이였음에도 나는 이미 우리 부모한테 부모 역할을 했다 Ich war schon als Kind Elternteil meiner Eltern"(83)고 회고한다. 작가의 기억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통역자이자 번역자로서 언어와 세계의 중간자 역할을 경험했던 사실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Vgl. Kim 2015, 81-96).

www.kci.go.kr

한 경계 속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인물들을 쉽게 만나 볼 수가 있다. 서사적 주체가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탐색해 가는 과정은 김의 핵심적인 서사 전략이기도 하다. 『얼어붙은 시간』의 주인공 노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삶을 의심과 불안 속에서 바라보는 이 인물은 아내를 잃은 루안의 아픔에 혼신을 다해 감정이입하는데, 이를 계기로 인물 자신의 내면적인 성찰과 루안을 향한 숨은 애정이 이야기 속에 함께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김안나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고유한 정체성을 기준으로 뚜렷하게 구분짓기보다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서로의 정체성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다. 탐험에세이 『사적인 것의 침입』에 그려져 있는 식민지 역사는 덴마크인과 이누크들의 공동의 역사로서 현대 이누크들이 겪는 내면적인 갈등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 이누크 젊은층의 덴마크와 유럽내륙에 대한 동경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끝나지 않는 '침입'에 대해 말해주며, 문명에 남아 있는 자아와 의식에 대한 오랜 종속 관계를 들춰낸다. 이러한 작품의 근원적인 주제는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의 철학적 단상과 서로 닿아있다. "독특한 방식으로 타자는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그는 우리의 자아의 숨겨진 부분이자, 우리가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장소다 Auf befremdliche Weise ist der Fremde in uns selbst: Er ist die verborgene Seite unserer Identität, der Raum, der unsere Bleibe zunichte macht" (Kim 2012, 5). 작가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은 존재에 관한 성찰과 함께 문학 형식에 관한 질문으로도 이어져 있다. 『그림의 흔적』은 언어와 형상 사이의 이중성 나아가 상관성을 모티브로 하는 소설인데, 이 작품의 배경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예술의 근본 형식과 형상을 빌려와 나와 타자, 낯섦과 친숙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소설은 실제 현실과 문학 양식 사이에 놓인 상관성에 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8] 이어지는 장에서는 『얼어붙은 시간』의 서술과 관련하여 죽음과 상실에 관한 작가의 풍부한 상상이 '죽음어 Totisch'라 불리는 독특한 문학적 착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

8) Vgl. "Especially *Die Bilderspur* – which opens with a quotation from Wittgenstein – reflects in a philosophical way on the role of rhetorical imagery, of *Bilderspur*, in the creation of alienation as well as the power of the imagination, Einbildungskraft, to deconstuct alienation"(Arteel 2012, 197).

www.kci.go.kr

고자 한다. 이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이 작품의 표현 형식인 2인칭 서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이다.

Ⅲ. 상실과 죽음에 관한 언어적 형상화: 『얼어붙은 시간』

Ⅲ.1. 2인칭 서사 - 트라우마의 증인

이 작품은 코소보 전쟁 실종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쟁의 참상이나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타자와의 이별을 통해서 관계와 사랑, 죽음과 폭력에 대해 성찰하는 화자의 독백적인 어조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야기의 앞부분에는 주인공이자 화자인 적십자사 직원 노라 Nora가 전쟁 중에 코소보 프리슈티나에서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아내 파리 Fahrie Alushi를 찾아나선 남편 루안 Luan Alushi을 돕는 이야기가 꽤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실제 재난 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는 데 쓰이는 앤트 모르템 데이터 AMD: Ante mortem data가 등장하고 있어,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통해 실종자 수색의 절박함과 스토리의 긴장감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차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작가 자신의 성찰적인 자아가 전달하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죽음에 대한 성찰이 짙게 드러나고 있으며 결말에 다가갈수록 이러한 해체적인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얼어붙은 시간』은 코소보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작가의 독특한 서술 양식 안에 재현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2인칭 서사는 철학적이고 에세이적인 문체와 더불어 실험적으로 열려있는 이야기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요소다. 아르텔 Inge Arteel에 의하면 서술 방식으로서 평범하지 않은 2인칭 서사를 선택하고 있는 점이 이 작품의 혼종적 hybrid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Vgl. Arteel 2012, 198). 여

www.kci.go.kr

기서 2인칭 서사란 서술자 narrator 이외에도 이야기의 청자 narratee가 이야기 속의 주요 인물로서 등장하는 이야기다.

> 2인칭 서사. 청자가 그녀 혹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이야기. 뷔토르의 『변경』이 2인칭 이야기다. second-person narrative. A narrative the NARRATEE of which is the PROTAGONIST in the story s/he is told. Butor's A Change of Heart is secone-person narrative(Prince 2020, 75).

2인칭 서사는 서사이론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 있는 특수한 서사 양식으로 일컬어진다. 이는 이야기 속에 굳이 청자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자는 서술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불특정한 존재이며 허구적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는 대체로 독자를 상정한다. 하지만 2인칭 서사에서는 서술자가 '너'로 칭하는 존재가 허구세계에 직접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지시대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이 생겨나기도 한다(이미란 2009, 417-435 참조). 플루더닉 Monika Fludernik은 2인칭 서사를 서사이론적으로 완벽히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통해서 이야기의 새로운 성격이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순하게는 2인칭 서사를 2인칭 인물에 관한 스토리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정의내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2인칭 서사는 흥미롭고 독특한 서사의 전개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구성적인 장치로 간주될 수도 있다.[9] 김안나의 이야기에는 플루더닉이 말한 2인칭 서사의 이 두 가지 역할이 모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작품에서는 화자인 노라가 루안을 호명할 때에 2인칭 대명사가 주로 등장한다.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이미 '너'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접하는 독자는 '너'에 대한 정보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혹감과 함께 낯선 느낌에 처해진다.

9) 2인칭 서사가 이야기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플루더닉의 가정은 2인칭 서사의 작품 분석을 위한 틀로서 실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2인칭 서술은 작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텍스트 이면에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2인칭으로 서술된 소설들 가운데 5・18과 같은 국가범죄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은 것 또한 이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김경민 2018, 203f. 참고; Vgl. Fludernik 1994, 284).

www.kci.go.kr

그런데 이런 낯선 느낌이야말로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다. 그 이유는 이야기의 에피소드들이 대체로 노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하고 있는 까닭에 화자의 기억 한복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의 귓가에 가까이 내려앉는다. 마치 내 옆에 서서 속삭이는 것 같다. 너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마침내 그녀를 찾았대 —. Deine Stimme, schmächtig, fällt dicht an mein Ohr, als stündest du neben mir und flüstertest, du sagst, du denkst mehr als du sprichst, sie haben sie endlich gefunden — [10]

루안을 '너'로 칭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가 과거 아내와 겪은 에피소드들, 아내 파리에 대한 기억과 실종 이후 그가 당면한 슬픔과 절망, 그리움, 회한 등이 그려져 있다. 즉 노라가 진술하는 내용을 통해서 독자는 루안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다. 파리와 루안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작품의 핵심적인 소재라는 점에서 2인칭 서사는 이 작품에서 루안이라는 인물의 서사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서사가 오직 '루안의 이야기'라고 타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노라는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관한 기억과 윤리의 서사로 평가되는 까닭은 2인칭 서사로 된 이 작품에서 생존자인 '나'는 고인이 된 '너'의 서사를 들려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그와 같은 서사 방식은 '너'로 호명하는 희상자들의 넋을 적극적으로 현실에 소환하고자 하는 작가와 작품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간』에서는 루안을 제외한 노라 역시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디아스포라와 관련되어 있다. 루안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이며,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 왔다. 7년여 전(그는 7년이 넘게 아내를 찾고자 수소문해 왔다) 아내가 납치되던 현장에 그가 부재했던 까닭도 이러한 이유

10) Anna Kim: Die gefrorene Zeit, Graz 2008, S. 9. 이하 본문에 약호 GZ와 쪽수로 표기함.

www.kci.go.kr

때문이다. 코소보 프리슈티나에 파견된 적십자사 직원 노라는 오스트리아인이다. 노라는 루안과 자신이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친밀감을 느낀다. “우리의 동병상련,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어진 공모자들이야. 그래서 말을 거치지 않고도 내가 너와 같은 일을 견뎌낸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있어 unsere Komplizenschaft, denn Komplizen sind wir, verständigen uns nicht über Worte, sondern beschränken uns auf Andeutungen, als hätte ich das Gleiche durchgemacht wie du”(GZ, 55). 루안의 상실감에 깊이 공감하던 노라는 어느덧 루안에게 사적인 감정을 품게 되지만 작가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노라가 코소보의 수색 현장에서 법의인류학자 Forensic Anthropologist로 일하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샘 Sam과 대비적인 인물임이 부각되고 있다. 희생자를 구하는 일에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일관하는 샘과는 달리 루안과 파리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몰입하는 노라는 코소보 사태에 대한 윤리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라가 ‘너’를 호명하면서 이루어지는 2인칭 진술의 대부분은 루안의 기억과 상관되어 있기에 노라의 말들은 곧 루안의 말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의 트라우마와 직결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희생자 파리의 죽음에 관한 애도와 이를 통한 깊은 사색을 드러내는 노라의 진술은, 한 개인의 트라우마를 소환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 속에 죽음과 상실에 관한 독특한 성찰의 장을 펼쳐낸다. 특히 작품이 끝나갈 무렵 등장하는 “죽음어 totisch”(GZ, 114)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언어라는 독특한 착안을 통해서 애도를 넘어 죽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암시한다. 죽음어의 등장으로 망자와의 단절이 낳은 슬픔과 애도가 상호 간의 공감과 이해를 향해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그 속에서는 루안 개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넘어서서 상실과 희생을 겪은 이들 전체에 대한 공감과 호소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라는 희생자들의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2인칭 서술에서의 화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타자의 트라우마에 대해 귀 기울이는 역할을 통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트라우마 역사에서 트라우마의 증인으로서 중요하게 내세워지는 “공동증인 co-witness”의

www.kci.go.kr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11)]

2인칭 서사에 대해 살펴본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2인칭 서술 방식이 작품 내에서 특정한 의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플루더닉의 가정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밀도르프 Jarmila Mildorf도 "문학에서 2인칭 서술이 쉬운 유형화를 거부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을 구현한다 literary you-narratives constitute a complex and multifaceted phenomenon that defies easy cathegorization"는데 동의한다(Vgl. Mildorf 2012, 75). 2인칭 서술을 활용해서 작가는 인물의 태도와 분위기, 대사의 뉘앙스를 전환하기도 하고 규범을 벗어난 예외적인 서술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김안나와 한강 두 작가 사이에는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이야기 속에 2인칭 서사의 이러한 독특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어지는 지면에서는 타자와 주체 사이에 드러나 있는 상실과 죽음에 대해 서술하는 김의 서술을 깊이 들여다 볼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김은 사물과 감정, 시간과 공간, 글자와 언어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문학적인 상상을 통해 다층적인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Ⅲ.2. 죽음 흔적

허구적인 이야기와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얼어붙은 시간』에는 특유의 혼종적인 이야기 방식이 특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앤트 모르템 데이터가 등장하는 곳은 문답 형식의 짧은 전개가 이어져 있어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관찰자인 노라의 시선은 루안이 품고 있는 고통을 짐작하기 위해 시종일관 그의 생각과 행동을 좇는다. 이 과정에서 실종된 혹은 이미 사망한 이의 흔적과 마주하는 가족의 심리는 특유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적십자사 직원 노라의 질문에 답해야만 하는 루안은 자신이 기억하는 아내의

11) '공동증인'이라는 표현은 홀로코스트 역사에 관해서 읽는 독자를 겨냥해 이들을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는 증인으로 상정하여 부여한 명칭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마리안네 히르쉬와 이레네 카칸데스의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Vgl. Guenther 2025, 32; Vgl. Hirsch u. Kacandes 2004).

www.kci.go.kr

모습을 억지로 떠올리는 일이 고통스럽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속옷의 종류와 모양, 키와 몸무게, 치아의 상태뿐만 아니라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까지. 실종자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들을 떠올릴수록 희망과 절망은 똑같은 크기로 그를 짓누른다.

> 생명이 없는 물건인 소위 실종자들의 소지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인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들이나 실종된 이를 그를 찾아다니는 이들과 연결지어 준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눈앞에 나타난 실종자의 흔적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 사물들은 시간의 서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은 겉모습에 가려진 것을 보지 못한다. 게다가 그것들은 눈앞을 가로막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한다. 흡사 황천길 위를 떠도는 망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다.
> Die leblosen Dinge, die so genannten Besitztümer, obwohl besitzerlos, obdachlos, verbinden den Suchenden mit der Gesuchten, bestätigen eine Spur, die unmittelbar erscheint, weil sie zeitlich nicht einzuordnen ist, der Blick zu dumpf für die Unterfläche. Zugleich sind sie Platzhalter, gaukeln Leblosigkeit weg, als wäre es unmöglich, einem Toten *in freier Wildbahn* zu gehören, dort wird man nur verloren(GZ, 23).

실종자 또는 망자한테서 발결된 소유물은 “생기를 잃은 사물”들로서 주인없이 흩어져 나뒹구는 것들이지만 누군가의 ‘흔적’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가족들에겐 그들이 찾던 바로 그 대상이며, 잃어버린 존재의 흔적이 직접 눈앞에 나타난 것과 다름이 없다. 사물들의 가장(假裝)은 바로 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주인을 잃고 남겨진 물건들은 흡사 자신들이 죽거나 사라져버린 이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양 생동감마저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묘한 역설이 말해주는 것은 실종자의 흔적에 끈질기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남겨진 가족의 상실감과 절박한 심정이다. 김안나는 실종자의 소지품, 흔적, 수색물, 사고 현장의 잔재 등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사물들과 실종, 상실, 절망, 죽음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 사이의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감각적이고 예리한 서술을 통해서 제시한다.

그렇다면 실종되어 망자가 된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되는가. 망자는 “더는 기억나지 않고 keine Erinnerung mehr” 그 “모습도 잊혀진 die Bilder verloren” 존

www.kci.go.kr

재로 일컬어지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어떤 깊은 흔적이 남는다. “그 모습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따라서 내 시야에서 빠져나갔다. 그런 뒤 눈꺼풀을 따라서 죽음의 구석으로 사라져 버렸다 sie schlüpften eines nach dem anderen aus meinen Augen und schlichen sich entlang der Lider in den toten Winkel”(GZ, 11). 죽음은 어쩌면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은연중에 내비친다. 죽은 이가 남긴 흔적은 존재가 사라졌음을 증거하는 사물이지만, 이를 뒤집으면 그것은 망자의 최후 현존을 증거하는 사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의 남겨진 흔적이 가족들로 하여금 망자/실종자 자신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기이한 체험이 생겨난다.

> (수색지에서) 찾은 물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머지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른 한편으로 가장 바깥에 놓인 껍데기일 수 있다. 그것에는 끝에 남겨진 것, 최종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담겨있다. 바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실종자를 그리워하고 찾는 이들이 그 두 영역이 완벽히 일치되어 있다는 생각 속에서 실종자의 무결한 내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두 영역은 따라서 함께 뒤섞여 분리될 수 없는 듯하다. 말하자면 죽은 시체가 되살아나 한 사람이 되는 일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Der Fund ist nicht die Person, sondern ihr Rest. Das Innerste, wenn man so möchte, andererseits das Äußerste, im Sinne von Letzte, Allerletzte, und doch sprechen sie von Identität, die Vermissenden und Suchenden, meinen vollkommene Übereinstimmung mit, zugleich innere Einheit der Person, die Ebenen vermischen sich, scheinen untrennbar: Es lässt sich nicht vermeiden, die Leiche wird zum Individuum(GZ, 14).

위의 인용문 안에는 망자의 유품이 뜻밖에도 존재하는 개인으로서 그의 정체성과 동일할 수 있음을 피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색지에서 발견된 유품과 시신 그리고 존재의 정체성은 죽음을 뒤로 한 채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생겨난다. 타인의 부재로 남겨진 물건들은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떠나간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실종자 또는 망자를 향한 그리움에 대한 절박함의 또 다른 표현이며, 그 속에는 시체가 되어 돌아온다 할

www.kci.go.kr

지라도 그가 사랑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는 가족의 안타까운 심경이 담겨져 있다. 죽은 자와 산 자, 현재와 과거, 기억과 실재 사이를 어지럽게 오가는 복잡한 서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쟁 희생자에 대한 슬픔과 애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의 끝에 가서 루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리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다. 그녀의 장례식과 관련된 장면들에는 환상과 실재가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상상력이 드러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죽음어'로 불리는 현세와 내세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염원의 대상이 등장한다.

Ⅲ.3. '죽음어 Totisch'

소설 속에서 타인의 부재가 가져온 상실감이 표현되는 방식은 언어의 부재와 관련이 깊다. 텅 빈 언어를 대신해 부각되어 있는 것은 루안이 내쉬는 한숨이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루안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처음엔 노라와 루안의 소통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다. 한숨은 "특유의 납득되지 않는 신체적인 표현 ein eigener, unvertretbarer körperlicher Ausdruck"이며 그것의 납득 불가능함은 한숨에 대해서 한숨으로 "응답할 수 없기 unbenantwortbar"(GZ, 20)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라의 감정이입에 기반한 독백이 2인칭 서술을 통해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탄식과 한숨은 루안이 갖고 있는 회환과 슬픔, 억눌린 감정에 대한 발설과 같다. 오직 신체의 언어만이 이러한 감정들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루안의 절망감은 말을 잇지 못하는 머뭇거림, 한숨과 침묵, 감정을 잃은 딱딱한 표정, 조용한 경련 같은 것들로 묘사된다. 루안이 입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이 꾸는 악몽,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삶에 대한 무력함을 호소한다.

> 고쳐 말하자면, 현재와 미래는 너한테서 잘려나갔고 그 끄트머리만 아직 남아 있어. 그게 환상실존이라고 하는 거야. 니가 언제든, 혹여 단 한 순간일지라도 고통을 잊게 되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지. 니가 파리가 실종된 것을 안 바로 그 순간에 너의 삶이 얼어붙

www.kci.go.kr

은 거야, 아니, 얼어붙은 것은 삶이 아니라 시간이지. 얼어붙은 시간.
Ich korrigiere, Gegenwart und Zukunft sind aus dir amputiert, Reste sind noch da, Phantomexistenzen, sie beschweren sich, wann immer du, und sei es auch nur für einen Augenblick, auf den Schmerz vergisst, dein Leben eingefroren in dem Moment, als du Fahries Verschwinden entdecktest, ach nein, es ist nicht dein Leben, das eingefroren ist, sondern deine Zeit, gefrorene Zeit(GZ, 32).

악몽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루안의 시간은 멈춰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얼어붙은 시간'은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동시에 그의 부재가 드러나 있는 현실을 받아들지 못하는 착종된 고통에 대한 은유다. 죽은 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멈춰있는 시간이 다시 흐를 수는 없는 것이다.

시간에 이어서 관계의 상실이 혼성적인 언어의 등장과 함께 표현되고 있는 장면에는 절망과 고통이 신체와 언어, 감각을 활용한 풍부한 상상에 의해서 나타나 있다. 이때 기억과 정체성의 혼란은 언어와 소통, 번역의 불가능함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네 몸에는 두 개의 혀가 살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혀, 다른 하나는 현재의 혀야. 그 혀들은 양쪽으로 갈라진 기억과 정체성을 양분으로 해서 살아가. 갈라진 혀가 한숨 속에서 부서진 말과 뒤섞인 문장들을 내뱉고 있는 거야.
Es leben in dir zwei Zungen, eine vergangene und eine gegenwärtige, sie nähren sich von zweierlei Gedächtnissen, Identitäten. Das Zwiegespaltene artikuliert sich in Sprachbrüchen, Hybridsätzen: im Seufzen(GZ, 21).

노라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이 혼재되어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루안의 언어가 "이해 불가능한 말 Kauderwelsch", "번역 Übersetzungen"이 불가능한 말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들은 "언어의 끝에 am Ende der Sprache"에 종착해 있다. 이 장면에서는 '카우더벨쉬'의 중의성이 포착된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은 평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한 속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야기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배경을 가진 노라를 비롯한 루안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면이 있

www.kci.go.kr

다. 또한 ‘언어의 끝’과 함께 부서지고 “몰락한 언어 untergegangene[n] Sprache” (GZ, 21)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죽음어’로 이어지는 언어와 죽음 사이의 순환 고리를 암시한다.

이 작품은 루안의 성향과 관련해서 그가 보여주는 침묵과 한숨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로써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의 유일한 표현 수단이 침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침묵은 이야기의 끝에 가서 망자들의 언어인 ‘죽음어’의 특성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죽은 자들은 말을 경시한다. 그들은 모든 작별인사에 담겨 있는 듯한 고요를 견디지 못하거나 그저 죽은 자들끼리의 침묵으로 똘똘 뭉쳐 있다. 죽은 자들 편에 서서 마치 죽음어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침묵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죽음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무서울 것 없는 침묵의 방언이다. 하지만 이 방언을 익히지 못한 이들은 말과 침묵 사이를 이리저리 배회하게 될 운명에 처한다. 노를 저어 이편과 저편 강가를 끊임없이 오가야 하는 그들은 안주하거나 멈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무언가에 떠밀리고 있기에.
>
> Jede Leiche spottet dem Sprechen, unerträglich die Stille, die jedem Abschiedssatz anzuhängen scheint, oder ist es doch eher ein Solidarisieren mit dem Leichenschweigen, ein totes Gespräch führen, indem man seinerseits zu schweigen beginnt, als wäre der Schweigende ein Mensch, der totisch spricht, einen Dialekt des allgemeinen, unverfänglichen Schweigens; aber jene, die diesen Dialekt nicht beherrschen, sind dazu verurteilt, zwischen den Orten des Sprechens und des Schweigens hin- und herzupendeln, ein ständiges Paddeln von einem zum anderen Ufer, ein Einrichten, Verweilen ist nicht erlaubt, etwas treibt sie an-(GZ, 113f).

루안의 소위 부서진 말들, 한숨과 뒤섞여 등장했던 침묵은 망자들의 언어를 닮아 있다는 점에서 파리를 잃어버린 순간에서부터 이미 루안은 그녀가 속해 있는 망자들의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김은 산 자와 죽은 자, 실종자와 가족, 떠난 이와 남겨진 이 사이에 놓인 단절 혹은 이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작품에서 상실 후의 아픔을 감당하는 이야기,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김은 서술을 통해서 죽음 또는 상

www.kci.go.kr

실이 삶에 각인된 상처라는 점을 알리는 데 치중하지 않는다. 죽음과 삶은 보이지 않게 서로 닿아 있으며 중첩되는 동시에 소통하고 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최후의 수단은 언어다. 언어가 트라우마의 생존자와 그 증인을 연결시키고 그들과 망자들 또한 잇고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이라는 내러티브적인 성격에서 보자면 김안나는 객관적 사실과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 경향 안에서 허구적인 상상을 이야기의 동력으로 삼는다. 죽음어는 애도와 슬픔, 간절함이 낳은 환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소위 이야기의 경계 넘기로서 트랜스내셔널 서사에 등장한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역사적인 증언문학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환상은 비단 비현실을 의미하고 있지 않으며 이야기에 담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죽음어가 현세와 내세의 중간지대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게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명제가 “죽어 있음은 부재하고 있음 Totsein ist Abwesenheitssein”(GZ, 113 강조는 논자)으로 표현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 유희적인 표현 방식은 죽음과 현존, 부재와 존재의 중첩을 수사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존재하는 부재자들, 이들의 존재함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영속적이기에 결국 이러한 존재의 실체는 부재하고 있음에도 존재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Anwesende Abwesende, die Anwesenheit unerträglich dauerhaft, im Grunde besteht das Wesen dieser Existenz aus Anwesenheit trotz Abwesenheit”(GZ, 113).

이 작품은 전쟁 희생자들이 그들을 상실한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곁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작가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과장을 섞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과장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문학적인 상상에 의한 내러티브적인 장치들이 그와 같은 가공할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된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 사라진 존재의 현존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서술하는 문장들과 관련해서 이를 비유적인 수사로 치부하지 않고 애도의 영역에 들어서고자 하는 문학적인 허구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www.kci.go.kr

Ⅳ. 결론

지금까지 김안나의 문학 작업과 관련해 다문화 서사 또는 트랜스내셔널 서사로 불리는 이야기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트랜스내셔널 서사는 이민문학의 계보 안에서 민족과 고향, 정체성에 관한 거대서사를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이야기 방식을 벗어나 지역과 민족, 인종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성을 바탕으로 추구되는 새로운 서사 양식을 일컫는다. 디아스포라와 인종, 트라우마 역사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오가며 자유분방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김안나의 작품들을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안나의 작품 속에서 풍부한 상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서 그의 2008년 작 『얼어붙은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에는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건이 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죽음과 언어의 상관성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언어의 부재와 침묵을 통해서 그려져 있으며 망자의 유품과 흔적은 시간성을 초월해서 사라진 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사물로 여겨지고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타자와 연결되고자 하는 바램은 결정적으로 '죽음어'라는 독창성을 지닌 문학적인 아이디어로 표현되어 있다. 타자를 상실한 데서 오는 고통은 언어의 상실과 부재를 통해서 묘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침묵은 작품 안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다. 죽음어가 침묵으로 이루어진 언어라는 사실이 작품의 끝에 등장함으로써 작가는 침묵으로 쓰인 언어를 통해서 잃어버린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www.kci.go.kr

■ 참고문헌

1차 문헌

Kim, Anna (2008): Die gefrorene Zeit. Graz.

Kim, Anna (2012): Invasionen des Privaten. Graz.

Kim, Anna (2015): Der sichtbare Feind. Die Gewalt des Öffentlichen und das Recht auf Privatheit, St. Pölten-Salzburg-Wien.

Kim, Anna (2024): Zwischen Fakt und Fiktion. Stefan Zweig Poetikvorlesungen. Bd. 10. Wien.

김안나, 최윤영(2020): [김안나 × 최윤영] 언어의 절박함 혹은 문학의 절박함. 김안나 인터뷰. 문학과 사회 33(2), 257-268.

2차 문헌

김경민(2018): 2인칭 서술로 구현되는 기억・윤리・공감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1, 203-227.

이미란(2009): 이인칭 소설의 창작유형 연구. '너/당신'의 정체성과 서술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1, 417-435.

최윤영(2020): 엑소포니 다와다 요코의 글쓰기. Exo-pho-nie, Yoko Tawada, 제이앤씨.

호비 바바(201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나병철 역). 소명출판.

Amodeo, Immacolata (1996): 'Die Heimat Heißt Babylon'. Zur Literatur Ausländischer Autor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Arteel, Inge (2012): Review. Frozen Time by Anna Kim. Journal of Austrian Studies 45(3-4), 197-198.

Catone, Antonella (2016): Suchen-Finden-Verlieren. Sprache und Identität in Anna Kims Die Bilderspur, REAL-Revista de Estudos Alemães, 6, 65-78.

Cha, Theresa Hak Kyung (1982): Dictee, Carlifornia. [차학경: 딕테, 김경년 역, 문학사상 2024.]

www.kci.go.kr

Cornejo, Renata (2012): “Die Heimat heißt Babylon”. Zum kreativen Umgang der tschechischen deutsch schreibenden Autoren mit der Sprache. In: Studia germanistica Nr 12., 95-103.

Deleuze, G. u. Guattari, F. (1977): Rhizom, Berlin.

Ette, Ottmar (2016): Writing – between – Worlds. Trans Area Studies and the Literatures-without-a-fixed-Abode. Vera M. Kutzinski trans., Berlin/Boston.

Esselborn, Karl (1997): Von der Gastarbeiterliteratur zur Literatur der Interkulturalität. Zum Wandel des Blicks auf die Literatur kultureller Minderheiten in Deutschland.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23, 47-75.

Fludernik, Monika (1994): Second-person narrative and related issues. Style, 28(3), 281-331.

Guenther, Christina (2025): Transnational Literature from Austria. Contemporary Fictions of Migration by Anna Kim, Milena Michiko Flašar and Verena Mermer. Journal of Austrian Studies 58.1, 25-48.

Hirsch, Marianne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New York.

Hirsch, Marianne u. Kacandes, Irene (2004): Teach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Holocau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Hueck, Carsten (2011): Porträt: Anna Kim. RBB Kulturradio, 03.09.2011.

Jay, Pau (2010): Global Matters. The Transnational Turn and Literary Studies. Ithaca.

Koiran, Linda (2023): Von Formen der Erinnerung zum postmemorialen Gedächtnis in ausgewählten Texten von Anna Kim. In: 독일어문화권연구 제32집.

Krauß, Andrea (2002): Talisman – Tawadische Sprachtheorie. In: Aglaia Blioumi (Hrsg.): Migration und Interkulturalität in neueren literatischen Texten. München. 55-77.

www.kci.go.kr

Mildorf, Jarmila (2012): Second-Person Narration in Literary ans Conversational Storytelling. A Journal of Narrative Studies Vol. 4, 75-98.

Müller-Funk, Wolfgang u. Bobinac, Marijan (2008): Gedächtnis-Identität-Differenz. Zur kulturellen Konstruktion des südosteuropäischen Raumes und ihrem deutschsprachigen Kontext. Francke.

Oswald, Helene (2013): Fremdheit in Anna Kims Die Bilderspur, Die gefrorene Zeit und Invesion des Privaten, Graz.

Poljak, Martina (2012): (Un)erzählbare Geschichte(n) in Anna Kims Die gefrorene Zeit, Zagreber Germanistische Beiträge 21, 165-180.

Prince, Gerald (2020): A Dictionary of Narratolog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diaspora-and-literary-studies/introduction/274888C534C5F66B3833D5661E286E08 (접속일: 2025.10.15.).

https://buecheratlas.com/2024/05/23/die-kunst-des-schreibens-ist-eine-tiefgarage-nava-ebrahimi-und-anna-kim-sprechen-uber-fakten-und-fiktionen-therapie-und-erkenntnis/ (접속일: 2025.10.15.).

www.kci.go.kr

국문요약

김안나의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

트랜스내셔널 서사 미학을 중심으로

김 수 민 (한양대)

김안나의 소설은 이민자로서 작가의 이력을 통해서 주로 이민문학으로 분류되지만 그의 작품에는 고향과 타국으로 양분된 세계에서 이방인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거의 이민문학과는 다른 경향이 드러나 있다. 디아스포라 개념은 오늘날 다문화적이고 상호문화적인 다양성을 반영하는 서사를 넘어서 언어와 형식을 통해서 이동과 다양성, 혼종성에 관한 실험적인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트랜스내셔널 서사로 일컬어진다. 김의 작품들은 포스트모던적인 서사 양식을 제시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트랜스내셔널 서사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코소보 내전을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2008년 작 『얼어붙은 시간』의 서술 방식이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작품 속에는 흔히 쓰이지 않는 2인칭 서사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소설의 화자 노라(“나”)의 의식과 체험이 루안(“너”)이 겪은 아내의 실종 사건에 관한 진술과 깊이 연루되어 나타나 있다. 노라에 의해 전해지는 루안의 이야기는 죽음과 상실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가의 독특한 상상력이 담긴 ‘죽음어’가 등장하고 있다. 타자를 잃은 상실의 고통이 언어의 부재를 통해 드러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죽음어’는 망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어 전쟁 희생자를 향한 애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김안나, 트랜스내셔널 서사, 문학적 상상력, 트라우마 재현, 2인칭 서사

www.kci.go.kr

Zusammenfassung

Fiktion und Imagination

Zu interkulturellen Schreibweisen in Anna Kims *Die gefrorene Zeit* (2008)

Kim Sumin (Hanyang Univ.)

Anna Kims Romane werden zwar aufgrund ihrer biografischen Anlässe überwiegend der Migrationsliteratur zugeordnet, aber sie unterscheiden sich von früherer Migrationsliteratur, in der es um die Suche nach der eigenen Identität als Fremde in einer zwischen Heimat und Fremde geteilten Welt ging. Der Begriff der *Diaspora* wird heute verwendet, um Erzählformen zu bezeichnen, die über Darstellung multikultureller und interkultureller Vielfalt hinausgehen und durch Sprach und Form experimentelle Narrative zu Migration, Vielfältigkeit und Hybridität präsentieren; solche werden als transnationale Literatur bezeichnet. Kims Werke gelten als Beispiele für postmoderne Narrative und können den transnationalen Narrativen zugerechnet werden. Der in 2008 erschienenen Roman *Die gefrorene Zeit*, der den Kosovo-Krieg behandelt, stützt diese Perspektive. Der Roman entwickelt sich durch die Erzählweise in der zweiten Person, die als Erzählform selten benutzt wird, und verknüpft die Erinnerungen und Erlebnisse der Erzählerin Nora(“ich”) mit den Aussagen von Luan(“du”). Luans Geschichte, die durch Nora vermittelt wird, spiegelt philosophische Reflexionen über Tod und Verlust wider, wodurch die einzigartige, von Kim erdachtete, “totische” Sprache(Sprache der Toten) eingeführt wird. Das “totische” Sprechen ermöglicht die Kommunikation mit den Verstorbenen und kann daher als Medium für Trauer um Kriegsopfer betrachtet werden.

www.kci.go.kr

Schlüsselbegriffe: Anna Kim, Transnationale Narrative, Literarische Imagination, Traumatische Erzählung, Second-Person Narration

필자 이메일 주소 및 직위: ar1854@gmail.com 한양대 강사
논문투고일: 2025. 11. 19, 논문심사일: 2025. 12. 09, 게재확정일: 2025. 12. 16.

www.kci.go.kr